

I. 서론

사진은 표현이다. 항상 그렇다. 당신만의 주제 혹은 소재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다면’ 그것을 왜 찍겠는가? (Duchemin, 2013, p. 45)

아동미술 역사는 사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그림으로 볼 수도 없는 낙서”였던 아동의 그림이 마치 성인작가의 작품만큼 가치를 지닌 “그림”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진 이 “아동화의 발견(discovery of child art)”²⁾은 바로 “사진기의 발명”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회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진기의 등장은 그 당시 화가들에게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이 더 이상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의 그림보다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사건이었다. 때문에 당시 화가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업을 “재현 영역의 밖”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예상치도 못한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그들이 찾은 새로운 표현 방향 중 하나가 객관적 외형을 기록하는 대신 인간 내면을 표현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곧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라는 새로운 문을 찾은 것과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자 그들은 그때까지 익혀온 회화 기술을 대신할 새로운 표현 방법이 필요해졌고, 이때 아동들의 자유로운 표현방식들은 더 이상 “낙서”가 아닌 그들이 찾아 헤메던 “대안적 표현 방식”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많은 모더니즘 화가들이 아동화를 수집하고, 따라 그리기를 시도하면서 아동화는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진기의 발명은 결국 “아동화의 발견”을 이끈 중요한 동력으로 볼 수 있다³⁾.

아동의 독특한 그림표현은 모더니즘 작가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아동의 표현발달 양상과 특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60여 년 동안 진행된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은 아동의 그림 표현 발달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동의 그림 표현을 체계적으

2)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사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아동들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나 그것이 마치 작가들의 작품처럼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다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고하게 된 것이라 하여 ‘발견(discovery)’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다(Wilson, 2004).

3) 브랜트 윌슨(Brent Wilson)에 의하면 아동미술의 발견을 이끈 배경은 심리학의 발달, 표현주의 화풍의 등장, 그리고 아동중심주의로 정리될 수 있다(Wilson, 2004). 본 연구에서는 ‘사진기의 발명’으로 촉발된 표현주의 작가들의 아동화에 대한 관심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었다.

아동의 디지털 사진표현의 발달특성 탐구: 아동의 그림표현의 발달특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

김미남

한양대학교 조교수

요약

그림 표현 발달에 대한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온 다양한 기초 연구들은 아동의 표현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런 정보들은 체계화되어 지금까지도 아동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아동이 사용하는 표현매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표현매체를 활용한 아동의 표현에 대한 기초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표현매체 중 아동들이 현재 가장 쉽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매체를 활용한 아동의 표현 특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초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시각자료들이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지 탐구하였는데 아동의 시각적 표현물을 질적 자료로 보고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동의 사진표현이 그림표현과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사진표현특성은 연령대가 다른 아동 집단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분석한 결과 각 학년군 아동들이 동일한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그림과 사진에서 다른 접근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1학년과 6학년 아동들의 사진표현에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아동미술(child art), 아동의 사진(children's photography), 사진표현 발달(expressional development of photography), 그림표현발달(expressional development of drawing)

1)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0000001061)

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아동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교육방법을 체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즉, 아동의 그림 표현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들이 바로 아동의 그림 표현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하고, 보다 효과적인 그림 표현 지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발달로 인해 이제 아동들은 이전 세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매체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진기가 바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표현 매체 중 하나이다. 사실 사진기가 발명된 이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은 사진기를 사용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사진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동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일찍부터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기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경률·공주희, 2010). 디지털 사진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학생들의 핸드폰 보유율의 증가는 얼마나 아동들이 손쉽게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2015년부터 초등학생의 핸드폰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서 초등 저학년생은 40.8%, 초등 고학년생은 72.3%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화, 2015). 핸드폰마다 사진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많은 아동들의 손에 사진기라는 표현매체가 가까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진찍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그림만큼 자유롭게, 어쩌면 그림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사진은 “아동미술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아동화처럼 아직까지 성인들에게 아동과, 아동의 발달, 아동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찍은 사진은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장난스럽게 셔터를 눌러 만든 쉬운 이미지로 여겨질 뿐이다.

본 연구자는 아동의 사진표현 발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진작가들의 강연을 듣고, 그들이 아동의 사진표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진작가들은 “그건(아이들의 사진) 사실 아무 것도 아니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난으로 찍은, 별다른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진이 추구하던 “사실 재현”이라는 유일해 보였던 목적도 현대사진에서는 무너지고 있으며, 사실 현대사진 작가들의 작품이 언뜻 보면 아이들이 찍은 사진들과 비슷해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아동의 사진작품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영준(2008)은 우리가 사진을 본다는 것이 그냥 사진의 시각적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작용 수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 즉 “동일화(identification)” 과정임을 강조한다. 동일화라는 것은 식별한다는 의미인데, 결국 보

는 이가 사진 이미지가 전개하는 의미작용과 수준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진에서 성인들이 별다른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동의 사진 이미지가 전개하는 의미작용을 성인들이 식별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동의 사진이 어떤 의미작용을 하는 지에 대해 성인들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동일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모더니즘 시대 예술가들이 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과 관점을 내려놓고 아동의 그림을 보았을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동의 사진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진에 대해 가졌던 전통적 방식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의 사진표현을 그림표현과 동일한 평면표현처럼 이해하던 방식에도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사진표현과 그림표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동의 사진 표현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 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에 ‘영상표현’ 영역을 신설한 이후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자의 이전 논문(김미남, 2014)에서도 밝혔듯이 이 분야의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사진을 왜 찍느냐, 무엇을 찍느냐, 어떻게 찍느냐, 그들의 사진표현에는 어떤 발달양상이 나타나느냐 등과 같은 아동의 사진표현의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기초연구들보다는 당장 성인 교사들이 사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지도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저자는 이전 연구(김미남, 2014)에서 이런 연구의 경향들이 계속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아동의 사진표현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 현실은 정리된 이론보다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진 활동들을 빨리 개발할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동의 사진교육 연구들이 대부분 사진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작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아동미술이나 미술교육 전공자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진표현 발달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는 사진표현 담론 변화와 사진표현과 그림표현의 근본적 차이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사진표현과 그림표현의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비교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진의 등장

만 레이(Mann Ray)는 사진이 발명되기 전 시기의 거장 예술가들을 “사물을 있는 그

대로 재현하던 훌륭한 사진가일 뿐”(Ray, 1992, p. 20)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말은 당시 서양미술이 마치 사진과 같은 ‘사실주의적 재현의 극치’를 목적으로 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재현에 대한 높은 욕구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결합하여 바야흐로 현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을 등장시켰고, 이 새로운 기술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문화적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Dubis, 2004; Wright, 2004).

최초의 사진기는 1839년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에 의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이소영, 2012). 그 당시 다게르는 사진기가 만들어낼 이미지가 예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의 사진기는 단지 서양미술이 추구하던 완벽한 재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물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Freund, 2006). 때문에 그대로의 사실을 그저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이 장치로 인해 자신들의 역할에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수많은 예술가들은 사진의 악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아무리 사진기의 재현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그린 사실주의적 재현이 질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들라로슈(Delaroche)가 처음 사진을 보고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Freund, 2006, p. 91, 제인용)라고 외쳤던 대로 사진은 예술가들을 그들이 그때까지 몰두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화 방식을 찾아 나서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사진의 등장은 예술계를 흔들어 새로운 진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이라는 외연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감’을 바탕으로 한 내면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예술영역의 확장을 이루어냈으니 말이다.

160여 년이 넘는 사진의 역사는 사진이 지금까지의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해석과 접근에 대해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적 재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표현에 대한 담론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아동의 사진표현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에도 꽤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진표현의 본질

이경률(2003)은 사진의 본질을 크게 아날로그적 본질과 디지털적인 본질로 나눈다. 전자는 사진이 ‘무엇과 유사하다’, 후자는 사진이 ‘무엇을 지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두 용어들은 해석적이고 개념적인 용어들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아날로그적 본질은 대상 그리고 대상을 찍은 이미지와의 유사관계로 사진을 이해하는 것을 그리고 디지털적 본질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각이미지로 사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피사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정확한 재현이 가능하므로 우리는 ‘좋은’ 사진을 사물을 정확하게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Wright, 2004). 하지만, 우리가 사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주의 즉 사진적 사실주의는 단순히 ‘대상의

외형을 정확하게 닮게 재현함’ 이상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사진적 사실주의와 회화적 사실주의

사진적 사실주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화적 사실주의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같은 대상을 재현할지라도 그림과 사진의 재현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립 뒤빠(Philippe Dubis, 2004)는 그의 저서 『사진적 행위』에서 사진과 그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사진적 사실주의는 기계적 방법 특히 렌즈에 의해 만들어진 “절대적 사실주의”로 보고, 손으로 복사된 회화적 사실주의와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뒤빠는 회화적 사실주의에서는 그림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 한 올 한 올 직조를 짜거나, 벽돌을 한 단씩 쌓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완성되지만, 사진적 재현의 경우 빛에 의해 전체 작품이 동시에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생성과정의 차이는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는 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회화의 경우, 작가가 아무리 대상을 똑같이 묘사한다고 해도,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가 표현 이미지로 연결된다. 뒤빠는 이를 두고 그림은 작가의 의도적인 번역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라고 하였다. 반면 작가의 부재 속에 순식간에 생성되는 사진작업의 경우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의도나 번역을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생성물로서의 사진 이미지는 그 자체가 대상을 복사한 “절대적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나 번역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상을 그대로 닮은 이미지가 다른 의도나 번역을 함축적이면서도 모호하게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그것이 사진 속에 존재하고 있긴 한 것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즉 회화적 사실주의는 상대적으로 작가의 분명한 의도를 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지만, 사진적 사실주의는 이미지 그 자체가 구체적인 대상과 너무 닮아서 다른 번역이나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경률, 2003).

사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예술은 구체적 사물이 없어도 상상만으로 얼마든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한정식, 2007). 사진은 유일하게 작품제작에 있어서 상상이 통하지 않는 예술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 사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작품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진표현은 그림표현과 다르게 표현주체가 이미지 생성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주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조건을 최대한 맞추는 “구체적 사물의 선택”만 가능하다(김미남, 2014). 그림표현과 다르게 사진표현은 모든 것을 한 번 만에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예술이기 때문에 사진적 사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어떤 대상이 사실 그대로 잘 찍혔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사진에 왜 그 대상이 선택되었는가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진으로 찍히는 것은 단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상태, 곧 사물의 의미나 존재 이유이다(한정식, 2007). 이 사물의 관계나 존재 의미는

사진가에 의해 규정되며 이것을 파악했을 때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한정식은 셔터를 누르는 행위를 사진 찍는 것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셔터를 누르는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며, 셔터를 눌러 고정된 사물은 이제 그 자체의 존재로서 사진 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흔히 아동의 사진 찍기를 “의미 없는 셔터누르기”로 여기는데, 사진기의 셔터는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눌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아동이 어떤 의식을 구체적 대상 이미지에 반영하였는지 즉 아동의 사진에 어떤 선택들이 내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해석을 시도해야만 한다. 작가가 이와 같은 사진 본연의 표현특성을 활용하여 추상적 주제를 사진으로 표현했을 때, 사진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암호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한정식, 2007). 아동의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인들에게 아동의 사진 속의 암호들을 풀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아동의 사진표현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사진이 언제나 대상의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표현적 측면에서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은닉하고 있기에 개념 미술에 가깝다(이경률, 2003). 이는 오랫동안 사진을 재현의 장르에서 그림과 동일시하곤 했는데, 사진과 그림은 상당히 다른 예술 영역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의 사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진은 “절대 닮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작가의 의도나 해석이 분명히 표현되기 힘들다. 때문에 사진은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상징이라는 코드(code)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게 된다(이경률, 2003, 2006). 많은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중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징들”⁴⁾이라 불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징들을 사용하곤 한다. 즉, 작가와 관객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징들을 사진의 함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차용함으로써 분명한 전달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진적 메시지 전달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사진표현은 진부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진은 그 자체의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코드화된 인식틀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숨어있더라도 비평가나 관객에게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역으로 사진을 찍는 이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상징이나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진을 보는 이에게 사진은 쉽게 읽혀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경률, 2003). 하지만 단점으로 보이는 이 사진메시지의 분명한 읽기의 어려움은 오히려 최

4) 이경률(2003)은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상징 또는 코드를 사용한 사진의 메시지 전달의 예로 어떤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인물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친구 문명의 교차를 표현하기 위해 시골 초가집과 현대적인 주유소를 사진 속에 병치시키는 방식을 언급하였다.

근 사진표현에 대한 담론에서 가장 사진다울 수 있는 본질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사회문화적 코드와 관계없는 방식의 메시지 전달 즉, 일 대 일 대응으로 읽혀지는 메시지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진표현이 더 사진의 본질적 표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진 표현의 특성들은 성인들이 이제 아동의 사진을 볼 때 절대 닮음으로 표현된 사진 속의 대상 이미지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대신 어떤 대상이 왜 그 사진 속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아동의 선택 이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려준다. 또한 아동의 사진 속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아동의 사진을 만났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그 사진이 문제가 있다고 저평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진이 “사진 본연의 표현”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사진이미지와 퍼스이론

사진 이미지의 자료적 가치 그리고 사실주의 문제에 대해 인식론적 관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 사진을 “현실의 거울” 즉 대상에 대한 정확한 닮음으로 보는 관점, (2) 사진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실재를 해석한 “현실의 변형”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3) 사진을 “현실의 자국” 즉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연상을 일으키는 신호로 보는 관점이다(Dubis, 2004). 사진 발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보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국의 분석철학자이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기호학 이론과 관련지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사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많은 담론들이 공통적으로 사진이 “존재의 신호”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신호로 보고 신호의 일반적 체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가 살피는 것은 사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퍼스는 현실에 존재하는 기호 체계를 도상(icon), 상징(symbol), 지표(index)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과 외양이 거의 비슷한 도상(icon),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합의한 혹은 관례에 따라서 정보전달이 가능한 기능을 하는 기호로서 상징(symbol), 그리고 기호가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무의식적 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호가 지표(index)이다(Wright, 2004, 재인용). <표 1>은 퍼스가 구분한 기호들의 예와 작용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1> 퍼스의 신호체계

신호의 종류	작동방식과 예시	기호와 지시대상의 관계
도상 (icon)	대상의 존재 또는 부재하는 특징을 근거로 도상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단순히 보내는 신호 예: 도로 교통 표지판의 신호, 화장실 성별을 구별하는 그림 등	일 대 일의 관계로 다소 분명하게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과 연결됨
상징 (symbol)	어떤 법칙이나 평범한 일반적 연상을 근거로 하여 어떤 대상을 상징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지적 알파 이성, 문화적인 코드 등과 관계됨. 예: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평화를 뜻하는 비둘기, 의미적인 제스처 등	
지표 (index)	불특정한 대상만을 지시하는 신호체계. 도상과 상징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적 원인성”이 존재. 부재 속의 존재를 암시. 존재의 신호. 지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현재 부재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무엇. 예: 발자국, 연기 등	일대 다수의 대상들을 지시

출처: 이경률, 2003, 재구성

퍼스의 기호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사진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실제의 모방적 재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진을 ‘도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모든 사진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코드화된 임의적인 형태로 분석”(Dubis, 2004)하는 실제의 변형으로 보는 것은 ‘상징’으로 작용하는 사진을 보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현실의 자국으로 보는 관점은 사진을 ‘지표’로 보는 것이다. 뒤따는 각각의 서로 다른 기호로 작용하는 장미 사진을 예로 들어 사진표현의 이해를 돕는데(Dubis, 2004), 장미를 찍은 이미지가 실제 장미를 거울처럼 재현하고 있다면 이때 사진은 ‘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찍혀진 ‘장미’가 문화적 상징(예를 들면, 정렬, 사랑처럼 사회문화적으로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코드)으로 해석학적 측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장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정열과 같은 공통의 사회문화적 코드가 아닌 지금껏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 인상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 사진은 대중코드를 비껴간 메시지를 은닉하는 것이 되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호학은 걸로 드러나는 의미 밑에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 준다(이영준, 2008). 걸으로는 실제의 외현 그 자체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표면에서 숨은 의미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기호학과 사진이 만나 이제 “정지해 있는 이미지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이동하고 유동하는 이미지”(이영준, 2008, p. 9) 로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사진은 여전히 성인에게는 “장난으로 찍은 이미지”로 고정되어, 그들의 사진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 지 유동적으로 읽혀지지 못하고 있다. 사진에 의미가 들어있다 해도 그 의미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로서 그 어떤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제 아동들의 사진도 단지 도상으로 서 무엇을 찍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상징과 지표로서 실재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으며, 어떤 실재의 자국이 아동의 사진 이미지 속에 남아 있는 지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진 읽기”를 “그림 번역”과 동일하게 보고, 결과물로 재현된 사진을 그림처럼 “그래서 무엇을 뜻한다”라고 의미론적으로만 분석해왔는데 이것은 분명한 착각이다(이경률, 2003).

3. 현대사진의 특징

기초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아동의 사진표현발달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화에서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바 있다. “사실적 재현”을 강조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아동의 그림이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실적 재현과 다른 방식의 표현 속에서 가치를 찾고 실험하던 아방가르드한 모더니즘 회화 양식들의 등장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치 실제처럼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찍을 것”이라는 사진의 기록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사진작가들이 시도했던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현재 단지 초점이 맞지 않아, 중요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찍었기 때문에 “장난처럼 보이는” 아동의 사진이미지도 예술성 있는 사진작품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성인들이 아동들의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물을 사실적으로 잘 재현한 사진들에 익숙해진 눈 때문일 수 있다. 한정식(2007)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눈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난해한 현대사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사진을 보면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아동의 사진이미지들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대사진과 현대사진의 관심 차이

사진의 발명은 회화가 수행하고 있던 묘사기능을 사진영역으로 가져왔다. 때문에 근대사진은 신속, 정확 그리고 정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사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길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여 다큐멘터리 사진 양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사실적 기록에 집중하던 근대사진은 1960년대 이후로는 묘사와 재현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표현 영역으로 탐색을 시작하였다(한정식, 2007). 이를 두고 한정식(2007)은 “기록성”의 바깥에서 사진은 더욱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내고야 말았다고 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현실과 사진 속 영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근대사진은 현실과 사

진의 차이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근대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고,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한 채 “현실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을 “결정적 순간”으로 보고 이를 사진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현대 사진은 현실과 사진의 틈에 집중하고, 이 차이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둔다. 현대사진에 담긴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관심이나 감정, 사상 등을 담고 있는 현실에서 빌려온 환영일 뿐이라고 해석된다(한정식, 2007). 따라서 현대사진에서의 “결정적 순간”은 현실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 아닌 작가의 “내적 순간”이 된다. 때문에 현대사진은 근대사진에서 재현의 실패로 여겨지는 “착각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추상화된 영상”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즉 근대사진이 추구하던 완벽한 재현은 관람자로 하여금 대상의 외형에 시간을 두게 하지만, 부족한 재현성은 오히려 작가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현대 사진은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 대상이 무엇인 지 파악이 어려울 때, 작가의 주제의식으로 직접 접근이 더욱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사진과 현대사진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바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아동들의 사진을 볼 때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즉 아동들이 현실의 사물세계를 그냥 보이는 대로 찍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진으로 찍힌 대상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사진은 “아이디어”나 “상상”과 관련없이 기계적으로 재현된 이미지로 해석의 여지가 사라지고 만다. 단지 정확성 판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들이 찍은 사진 속의 현실이 “실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아동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즉 아동의 사진을 아동의 발달과 흥미, 상상을 나타낸 “기호”로 보고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진의 이해를 방해하는 사진수용자들의 고정된 관념은 아동의 사진을 이해하는데도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진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주제의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아동 사진을 보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사진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내면의식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2) 현대사진의 특징

근대사진과 현대사진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현대사진의 특징을 짐작해볼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대사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사진을 분석할 때, 현대사진적 요소가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식(2007)은 현대사진의 큰 특징의 하나로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언급한다. 근대사진의 경우 사진의 프레임을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진의 운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항상 그 프레임 안에서 작가의 주제를 표현할 가장 완벽한 구도를 고민했

지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반면 현대사진의 경우는 하나의 프레임이 아닌 아예 복수의 프레임을 가정하고 작업을 하기도 한다(진동선, 2008). 그들은 여러 프레임으로 한 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며, 때론 하나의 주제를 복수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Cotton, 2007). 또한 인간의 시각으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두 번째 현대사진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확장”이다(진동선, 2008; 한정식, 2007). 근대사진의 경우 현실적 상황으로서 “시공간 일치로서의 ‘사건’(event)”(한정식, 2007, p. 120)을 담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분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시공간을 나누더라도 근대사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이었을 것이다.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근대사진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가 주장한 “결정적 순간”은 사실 조화로운 화면을 이루는 공간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현대사진가들은 공간보다는 시간에 대한 의식을 우선으로 한다(한정식, 2006, 2007). 즉 사건을 잘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성”을 그대로 영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초점 흐림 등이 나타나도 “시간의 흐름”의 표현으로 설명된다. 현대사진가들이 볼 때 근대사진은 조화롭고, 선명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생동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실을 프레임 안에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작가들은 과연 어떤 사진이 더 사실적인가 묻는다.

세 번째 특징은 현대사진이 객관적 가치보다 주관적 가치로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한정식, 2006, 2007). 다큐멘터리 사진은 근대사진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런 유형의 사진은 객관적인 가치를 사진 속에 담은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근대사진은 객관적 가치를 바탕으로 영상의 중성성과 엄격한 형식을 추구하였다. 반대로 현대사진은 영상의 주관성과 탈형식의 미학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현대 사진은 오랜 시간 사진 촬영의 핵심처럼 굳어졌던 “결정적 순간”의 틀도 열어버렸다. 현대사진은 다수의 사람들이 감탄하는 객관적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보다 개인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극적 순간을 발견하는데 더 의미를 둔다. 때문에 근대 사진에 익숙한 대중들은 현대사진의 이런 탈선과 폭주에 당황함을 느낄 수도 있다. 주제면에서도 근대사진처럼 사회 속에서 파악한 인간을 찍는 대신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찍는다.

프랑스 화가 폴 델라로슈(Paul Delaroch)가 사진 발명을 두고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사진기가 발명된 뒤 160년이 흘러 사진 비평가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Krimp)는 사진의 종말을 외친다, “이제부터 사진은 죽었다!”(진동선, 2008, p. 70). 크림프가 제기한 사진의 종말은 바로 근대 사진의 죽음의 의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사진표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대사진에 익숙한 우리의 시선으로 아동의 사진을 바라보던 시선의 종말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사진표현의 본질과 현대 사진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사진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과정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가 아동의 사진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 스스로 사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했다. 1년 정도 사진수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사진전문가들의 강연을 찾아다니고, 묻고 대화를 나누며, 사진이론 공부도 함께 병행하였다. 맨 처음 예비로 수집한 아동들의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도 ‘이런 것을 사진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회의적으로 자문했던 모습도 떠오른다. 아동의 사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썼던 첫 논문, 『아동의 효과적인 사진표현전략 지도를 위한 사진표현발달의 특성 이해: 유치원 아동을 중심으로』(김미남, 2014)는 의욕이 연구자의 준비상태보다 앞섰던 논문이었다. 아동의 사진표현에 대한 두 번째 기초연구이기도 한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아동들의 사진표현의 발달 특성을 연령대별로 비교하고 싶었다. 로웬펠트의 미술표현발달 이론에서 아동들이 연령대별로 보여준 표현전략의 차이와 표현의 특징들처럼 사진표현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림표현 발달과는 다른 연령대별 사진표현의 특징을 좀 더 살피기 위해, 발달단계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단 그림표현에 있어서는 저학년 아동들은 ‘도식기’에 해당하며, 고학년 아동들은 ‘의사실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 정도의 분명한 표현 발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진표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명한 발달 특성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66명과 6학년 아동 76명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표현활동의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의 주로 생활하는 공간(학교나 집을 포함)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단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찍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이경률(2003)이 작가의 처음 의도와 관객의 사진 읽기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때문에 두 차이를 좁히거나 일치시키기 위해 텍스트를 통해 사진 이미지가 어떤 코드 또는 상징을 사용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 주장을 참고하여, 아동이 자신의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함께 수집하였다. 그림은 수집하여 원화를 관찰하기도 하고, 스캔하여 분류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사진은 파일로 받아 디지털 인쇄를 하여 분석에 사용

하기도 하고, 모니터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사랑”이라는 주제는 아동들로 하여금 단순한 현실 대상의 묘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즉 우연히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시각적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표현으로서의 사진을 시도하도록 도와준다. 앞서 그림표현과 사진표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그림은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들을 작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되지만, 사진의 경우 주제의식은 늘 “구체적인 대상물”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좀 더 어떤 상징을 만들고, 어떤 상징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주제 대신에 ‘사랑’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 추상적 주제지만,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야 했기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최종으로 선택되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떤 식이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절한 상징이나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며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지 분석하는 것은 아동의 그림표현과 사진표현의 차이의 이해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다른 두 학년 아동집단들의 사진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아동들이 만든 시각이미지와 그에 대한 설명인 텍스트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이 두 종류의 자료를 양적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질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질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적자료처럼 다루어짐으로써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김미남, 2011). “비관적 시각 연구방법론”을 실행해오고 있는 로즈(2001) 역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시각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각이미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해석이 시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좀 더 시각자료를 시각자료답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아동의 그림과 사진을 다른 질적 자료들처럼 반복적으로 읽으며, 각 자료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개념화시켜 이를 다시 몇 가지 주제로 모았다. 이 주제 모음들을 다시 해체하고 모으기를 반복하여 아동의 그림표현과 사진표현의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개의 범주들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시각이미지 자료의 다수가 반영하고 있는 특징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수의 시각이미지 자료에서 발견된 개념일지라도 아동의 사진표현 발달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시도하였다.

IV. 연구 결과와 분석

수집된 1학년과 6학년의 사진과 그림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물을 일단 1학년의 그림과 사진표현의 특성 비교 그리고 6학년의 그림과 사진표현의 특성 비교로 정리해 보았다.

1. 1학년 아동의 “사랑” 그림과 “사랑” 사진의 표현특성

1) 1학년의 “사랑” 그림

① 사랑은 사귀는 것, 결혼하는 것

1학년 아동들이 그린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었다. 따라서 그림에는 주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사귀기도 하며(그림1), 결혼을 하기도 한다(그림2). 때론 나무 뒤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을 향해 하트 모양의 눈을 하고 짝사랑을 하기도 한다.

이 남녀 인물을 같은 공간에 세워 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둘 사이의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를 마음껏 사용한다. 애정표현은 직접적으로 묘사되는데 남녀학생들을 불문하고 ‘사랑’은 떨림과 포옹과 뽀뽀와 함께 존재한다(그림3). 애정표현 외에 사랑의 상징으로 ‘하트모양(♥)’과 꽃이 아낌없이 분위기를 살려준다. 하트는 얼마든 지 그릴 수 있기 때문인지, 1학년 학생들의 거의 모든 그림에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1학년 학생 사랑그림, 이성친구(도화지에 연필, 크레파스, 수채물감)



[그림 2] 1학년 사랑그림, 결혼식 (도화지에 연필, 크레파스, 수채물감, 부분)



[그림 3] 1학년 학생 사랑그림, 사랑표현(도화지에 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② 사랑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1학년 아동들은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남녀 간의 사랑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린 것이 “가족”이었다([그림 4]). 3인 가족을 그린 한 명의 학생을 뺀 나머지 가족들은 4인~6인까지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기도 하고, 동일한 머리스타일, 가족 잠바를 입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밝고 행복한 얼굴표정과 몸짓에서, 또 수없이 그려진 하트모양과 무지개 그리고 꽃 더미들을 통해 학생들은 그림 속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림 4] 1학년 학생 사랑그림, 가족(도화지에 연필, 크레파스, 물감 등)

③ 다양한 하트로 사랑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보자

1학년 학생들의 그림 속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의 하트를 사용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하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화하기도 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커다란 하트모양 속에 사람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또한 빈 공간에 수없이 작은 하트들이 날아다니기도 한다. 때론 꽃나무의 잎모양이 하트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트무늬가 그려진 옷들을 등장인물들이 모두 입고 있기도 하는 등 그림에서 하트는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1학년의 “사랑” 사진

사랑을 “사귀, 결혼” 혹은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표현했던 1학년 학생들의 그림과 달리 사진은 이런 이해와 의식을 반영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1학년의 사진에서 사랑은 (1) 이미 표현된 것을 찾아라, (2) 같이 있는 것을 찾아라, (2) 하트를 찾아라, (3)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물건을 찾아라, (4) 새로운 상징을 찾아라, (5) “찾았다!” 초점따윈 신경쓰지 않아 같은 5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각 표현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미 표현된 것을 찾아라

1학년 아동들의 사진에서는 그림에서처럼 이성의 사귀고 결혼을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서인지 1학년 아동들의 사진에서는 이성 간의 사랑은 거의 표현되고 있지 않다. 실제 주변에서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를 찍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경우 이미 “이성간의 사랑”을 표현한 다른 작품 찾아 찍는다([그림 5]와 [그림 6]). 실제로 아동들의 경우, TV 화면을 찍거나, 그림책의 그림들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신이 찾는 대상과 장면을 찾기 힘들 때, 이런 사진찍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림 5] 1학년 사랑사진, 이성 캐릭터가 그려진 것을 찾아 찍기

② 같이 있는 것을 찾아라

실제 이성교제나 결혼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 대상 찾기가 힘들어서인지 그림만큼 이성 관계를 표현하는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 의식을 반영할 대상을 “같은 곳에 같이 있는 남녀” 또는 “무엇이든 둘이 있는 것”을 찾아 찍는 것으로 대신한 것처럼 무언가 같이 있는 대상을 찾아 찍은 사진이 많았다. [그림 6]은 학교 방충조화에 나온 여학생과 남학생을 찍은 것인데, 실제 “둘이 있어서 사랑같다”(1학년 남학생의 답변)로 사진을 찍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실제 사귀는 사이가 아닌 친구들도 교실에서 근처에 앉아 있거나, 수업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마 저도 여의치 않았는지, “무언가 둘이 있도록” 구성하여 찍기도 했다([그림 7]).



[그림 6] 1학년 사랑사진, 방송에 나온 남학생과 여학생



[그림 7] 1학년 사랑사진, 남녀 얼굴을 그린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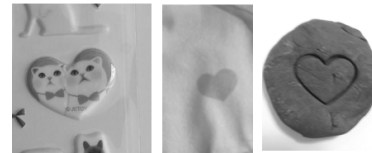
“같이 있는 대상”으로 사랑과 매개된 관계가 확장되자, 친구들이나 나와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들, 사람과 인형, 포켓몬과 지우 등으로 사랑이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찾아 표현하였다. ‘사랑’을 좀 더 확장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사진이 만들어주고 있었다.

③ 하트를 찾아라

1학년 학생이 사랑그림에 하트를 많이 그리기는 했지만, 하트만 단독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는 단 3장 밖에 없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의 사진에서는 유난히 하트모양의 물체나 이미지 찾아서 찍은 사진이 많았다([그림 9]와 [그림 10]). 특히, [그림 10]의 경우는 “훌륭해요”라는 다른 의미로 사진이 임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치 않고 찍은 학생들이 많았다. 하트모양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종이에 하트를 그린 뒤 그림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그림 11]).



[그림 10] 1학년 사랑사진, 하트



[그림 9] 1학년 사랑사진, 하트



[그림 11] 1학년 사랑사진, 하트를 그려서 찍은 사진

④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물건을 찾아라

사랑을 주제로 한 1학년 사진들에서 발견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이 하나씩만 찍혀져 있는 사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진들의 경우, 사진에 주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지 알 수 없는 사진이었는데, 사랑을 대상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물건”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의 해석은 “하트모양의 물건이나 이미지”를 찾는 것처럼 피사체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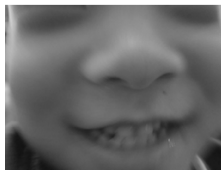
로 공용되는 “사랑”의 상징이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학생의 주관적인 관점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종류의 사진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왜 사랑을 표현한 거야?’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한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지표로 사진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떤 의식들이 반영되었는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는 학생의 엄마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화초를 찍었는데, 물과 영양분을 주듯 사랑은 계속 돌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⑤ “찾았다!” 초점 따윈 신경 쓰지 않아

1학년들이 찍은 사진 66장 중 30장 이상이 초점을 정확히 맞추지 않은 사진이었다. 1학년들의 경우, 사랑의 이해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징들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진기를 들고 상징으로 쓸 대상들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다보니, 어렵게 찾은 자신들이 생각한 상징으로서 대상 앞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찾았다!”는 사실이 찍혀진 이미지를 다시 확인해서 초점이 맞지 않았으니 다시 찍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사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셔터를 누르기 전 선택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린 아동들의 초점 맞지 않는 사진들에 너무 실망하고 억지로 초점이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도에 신경 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12] 1학년 사랑사진, 엄마가 사랑으로 키우는 화초



[그림 13] 1학년 사랑사진, 사랑하는 동생



[그림 14] 1학년 사랑사진, 가장 감동받은 사랑영화 ‘마음이’

지금까지 1학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과 사진의 표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았듯이, 동일한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매체를 활용한 표현을 지도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학년 아동들이 사랑을 표현한 그림과 사진은 1학년들이 만들어낸 표현과 또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었다. 두 매체 간 표현 특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1학년과 6학년의 사진 표현이 어떻게 다른 지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다음은 6학년 사랑그림과 사랑사진의 표현 특성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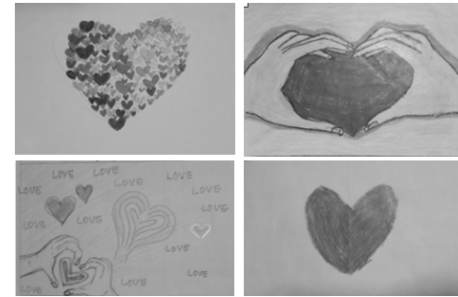
2. 6학년 아동의 “사랑” 그림과 “사랑” 사진의 표현특성

1) 6학년의 “사랑” 그림

이제는 6학년의 사랑그림을 살펴볼 것이다. 6학년의 사랑 그림에서는 1학년과 달리 하트모양이 독립적이고 중심적이 소재가 되어 사용된다. 그리고 지표로서 이야기가 담긴 일반적이지 않은 상징들을 사진 속에 담고 있다. 1학년만큼 몰입하여 표현하지 않지만, 6학년 학생들도 여진히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때의 인물들은 누구인 지 분명히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 존재이다. 각각의 표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랑은 하트다 하트

1학년에 비해 6학년의 사랑그림에는 [그림 15] 처럼 하트가 중심으로 사용된다. 이런 하트표현은 고학년학생들의 묘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적어도 그림의 주제전달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5] 6학년 사랑그림, 하트

② 사랑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6학년 그림에는 유난히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언뜻 보면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대상들이지만 분명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에 존재할 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림 16]은 상단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각각 제주도의 외돌개(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바다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을 지닌), 지구사랑, 나라사랑, 학교사랑(곧 졸업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다), 동물사랑, 불편함을 지닌 친구에 대한 사랑 등을 의미한다.



[그림 16] 6학년 사랑그림,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

③ 사랑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둘이서 만드는 것

6학년 사랑그림에는 인물표현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성간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대신 누구인 지 알 수 없는 추상적 인물들([그림 17])이나 의인화된 동물이나 생명체들이 대신 등장한다([그림 18]).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인물을 표현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추상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생명체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비판적 시선으로부터 안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시도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1학년 그림표현에 비해 사랑을 남녀 이성 관계나 가족 간의 사랑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두 개체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랑을 매개로 한 관계를 보다 넓혀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7] 6학년 사랑그림, 추상적 인물들의 사랑

1) 6학년의 ‘사랑’ 사진

사랑에 대한 6학년 학생들의 사진 찍기에서는 가족이 중심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선택되었다는 점, 일반적 상징으로 보이는 둘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대상들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표현의 특성인 절대 닳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점이 특히하였다. 이런 사진표현의 특성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6학년 사랑그림. 추상적·의인화된 대상 간의 사랑

① 사랑은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림에서 2명 정도가 가족을 그렸던 것에 비해, 전체 사진의 절반 이상인 39장의 사진에서 사랑이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가족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가족 전체, 모자, 모녀, 부자, 부녀, 할머니와 엄마, 형제, 자매, 남매, 사촌형제들과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1학년의 경우 사진에서는, 인물들이 뽀뽀를 하거나, 껴안고 있거나, 팔로 하트모양을 만들거나, 밀착된 상태로 친밀함으로서 사랑을 표현했다면([그림 19]), 6학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다. 격한 애정표현도 손을 다정히 잡고 있거나, 얼굴을 부비지 않는다. 대신 배경정보가 꽤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가족 여행을 하고 있음”이나 “찜질방에 함께 있음”, “영화를 같이 보러 왔음”이나 “놀이공원에 함께 왔음” 등과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임을 표현한다([그림 20]).



[그림 19] 1학년 사랑사진 속 가족(부분사진)

이런 다양한 인물로 구성된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주제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일단 복잡해진 사랑에 대한 이해, 즉 함께 무언가

를 하고, 공유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그림표현은 여러 가지 넘어야할 장애물이 있는 반면, 6학년 학생들에게 '사진표현'은 그 복잡한 의식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 6학년 사랑사진 속 가족(부분사진)

② 무언가 두 개의 관계

사진은 그림과 달라서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대상이 절대적으로 닮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기 쉬워 그 대상에 반영된 의미를 찾아내기 힘들다. 이경률(2003)은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주관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와 관객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징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6학년 사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주제가 표현될 수 있는 상징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진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그림 21]). 어떻게 보면 진부한 사진표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6학년 학생들이 그림표현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단순히 하트라는 대중적인 사랑의 상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서 벗어나 다양한 사랑의 상징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사진표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언가 두 개라는 이미지 탐구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림 21] 6학년 사진표현. 사랑=무언가 두 개의 관계

③ 사랑의 부재 속에 사랑을 표현: 지표로서 사진표현

[그림 22]가 보여주는 사진들은 전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생들이 주장한다면 많은 성인들이 전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찍고 싶은 걸 그냥 막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이런 형태의 아동사진을 보는 성인들이 사진이미지가 무언가를 도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이 항상 대상의 사실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축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의 측면도 지닌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즉 사진을 그림과 같은 재현의 장르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다른 예술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경률, 2003). 이경률은 때문에 사진은 개념미술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개념미술은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 자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다. 즉 주제는 작품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은 주제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시하는 지표이다.

[그림 22]와 같은 아동의 사진들도 겉으로 보이는 대상 자체를 이야기하는 사진이 아니다. 이 사진을 통해 아동은 자신들의 사진을 통해 사진이미지 너머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잘못 찍은 사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동들이 사랑을 어떻게까지 해석하고 있는 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의문을 던지다 보면 의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제일 좌측의 사진은 총이다. 현실 속의 총으로 보고 의미를 읽게 되면 오히려 사랑과 반대의 의미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아동은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 총을 찍었다. 중앙의 사진은 그냥 학생의 자화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학생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찍었다. 마지막 사진은 시계를 찍은 사진이다. “사랑은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며, 과거는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시간과의 관련 속에서 사랑을 해석하는 학생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 이미지를 만날 때 잘못 찍은 사진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아동의 사진과 전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주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듯, 아동의 사진에 뜬금없이 등장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동의 사진과의 “동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22] 6학년 학생의 사랑사진. 사랑의 지표

V. 논의 및 결론

사랑을 주제로 한 1학년과 6학년의 그림과 사진의 표현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동일한 주제에 접근하는 두 매체표현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생각한 것을 상상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과 생각한 것을 현실의 대상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표현은 의외의 다른 이미지들을 담게 만들었다. 1학년의 경우 사랑을 “적극적인 이성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사랑으로 뭉쳐있는 가족”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 달리, 현실 속에서 이런 완벽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대상을 찾아야만 원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은 아동으로 하여금 동화책 표지에서 사랑하는 남녀를 찍거나, 사랑을 보여주는 만화 캐릭터들을 찍게 만든다, 남녀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이 장면을 찍는다. 혹은 확실한 사랑의 “상징”인 하트모양을 찾는 일에 열중한다.

6학년의 경우 사랑을 주제로한 그림은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표현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주제전달을 할 수 있는 하트에 집중하거나, 추상적인 인물이나 의인화된 생명체들을 등장시켜 사랑을 표현한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게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6학년들은 사진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인간관계 속 사랑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성관계보다 다양한 두 개의 개체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된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랑도 매우 다양한 조합들을 만들어 사랑을 선택한다.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사진으로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특징적인 사진표현은 지표로서 사진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속 분명하게 보이는 대상에 집중해서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진은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매체 표현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 지 그리고 그림표현 발달만큼이나 아동의 사진표현에서도 연령차에 따라 여러 가지 발달적 표현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진표현을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활동을 개발하는 일과 더불어, 아동의 사진표현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더 많은 후속 기초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의 예술은 표현을 하기 전 표현 도구를 작동할 기술을 수년 간 먼저 터득해야 한다. 하지만 사진은 이 표현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표현작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매체이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바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진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빠르다거나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이제 이 “지금 당장”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표현매체를 가지고, “표현으로서의 사진”(Duchemin, 2013)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과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사진기라는 표현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사진 표현 작업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아동들의 작품의 차이는 사진기를 다루는 기술보다는 주어진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진교육에서 강조하였던 “표현 도구를 어떻게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고도로 자동화된 표현 도구인 사진기를 사용하여 “어떻게 일상의 구체적인 사물들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사진표현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쉬운 표현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아동들에게는 아직 진지하게 사용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활동이었다. 하지만, 사진표현은 그림표현으로 표현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제를 표현할 다양한 종류의 기호들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경률(2003)은 사진의 본질을 크게 아날로그적 본질과 디지털적인 본질로 나누면서 전자의 사진은 “무엇과 유사하다”, 후자의 사진 “무엇을 지시하다”라는 것이라 설명한다. 우리가 아동의 사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 사진을 볼 때 어떤 대상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아 무엇을 찍었구나!’ 정도로 단순하게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진 속 대상이 그것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시할 수도 있음을 살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좋은 사진을 사물을 정확하게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보는 편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사진적 사실주의는 단순하게 정확히 대상의 외형을 닮게 재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가 원래 목적이었던 아동의 사진표현 발달 특성의 이해를 위한 좀 더 의미 있는 기초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아동들과 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의 사진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림표현 발달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미술교육자들이 아동의 그림에서 발달적 특성, 성별차이, 또래집단 간의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피는 다각적 연구를 진행했듯이, 아동의 사진표현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탐구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김미남 (2011). 부정적 감정 경험을 주제로 한 아동화에 사용된 표현 전략 해석: 감정표현의 배경적 이해를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2(1), 119-147.

김미남 (2014). 아동의 효과적인 사진표현전략 지도를 위한 사진표현발달의 특성 이해: 유치원 아동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8(1), 161-196.

김윤화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STAT 보고서*, 15(18), 1-7.

이경률 (2003). 사진은 무엇을 재현하는가: 사진과 존재 그리고 인덱스. 서울: 마실.

이경률 (2006). 사진, 자동생성과 재현의 논리. 철학아카데미(pp. 316-331). *철학, 예술을 읽다*. 서울: 동녘.

이경률 · 공주희 (2010). 사진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진의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지*, 23, 6-15.

이소영 (2012). *사진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멘토르.

이영준 (2008). *비평의 눈초리: 사진에 대한 20가지 생각*. 서울: 눈빛.

진동선 (2008). *현대사진의 쟁점*. 서울: 푸른세상.

한정식 (2006). *사진, 예술로 가는 길*. 서울: 눈빛.

한정식 (2007). *현대사진을 보는 눈*. 서울: 눈빛.

Cotton, C. (2007). *현대예술로서의 사진*(권영진 역). 서울: 시공사.

Dubis, P. (2004). *사진적 행위*(이경률 역). 서울: 마실가.

Duchemin, D. (2013). *사진을 말하다*(추미란 역). 서울: 정보문화사.

Freund, G. (2006). *사진과 사회*(성완경 역). 서울: 눈빛.

Ray, M. (1992). 'Man Ray', In P. Hill and T. Cooper(eds) *Dialogue with photography*(pp. 17-25), Manchester: Cornerhouse.

Rose, G. (2001). *Visual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Wilson, B. (2004). Childart after modernism: Visual culture and new naratives. In E. W. Eisner & M. D. Day(Eds.). *Handbook of research and policy in art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Wright, T. (2004). *사진이란 무엇인가*(이주영 역). 서울: 눈빛.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Digital Photography and Drawing

Mi-Nam Ki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photos and pictures of 'love' collected by the primary and sixth graders. A variety of basic studies on development of children's picture express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have made it possible to find meaningful information to understand children's artistic development. This information from various research on children's picture provide adults including art educator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drawing and this information has been systematized and used for teaching them effectively. However, although the age is changing and the expression medium used by children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ified and digitalized, basic research on the expression of children using this new expression medium is still not conducted 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using the digital media, which are most easily used in their everyday life. To do this, we examine how children's photography expression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ir drawing expressions,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y expressions differ among children of different 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ing children's pictures and photos on the theme of 'love' show that each grade school children use different approaches in painting and photography to express the same subject, and there is also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expressions in photographs of first grader's and those of sixth grade childre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ore basic researches on photographic media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results.

논문접수 2017. 1. 10	심사수정 2017. 1. 23	게재확정 2017. 1. 25
------------------	------------------	------------------